

P28. 농림어업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 비교 분석

Disease, Accident and Public Health Consciousnes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worker

김경란, 이경숙, 김효철, 김경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Kim, Kyung-Ran · Lee, Kyung-Suk · Kim, Hyo-Cher · Kim, Kyung-Su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1. 연구목적

농림어업인은 근골격계질환등 여러 직업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농업인이 앓고 있는 질환과 안전사고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농업인의 건강·안전 연구,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1년도에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무작위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조사된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건강면접조사는 13,200가구 약 40,000명에 이르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 분석은 건강면접조사자료와 보건 의식행태조사(건강면접 조사의 1/3)자료 중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으로 분류하여 질환발생, 사고중독, 보건 의식행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처리는 SAS 8.2 version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대상중 30세 이상의 농림어업인의 성별비율은 남자 51.9%, 여자 48.1%였으며, 평균연령은 57.9세였고, 의료보장종류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55.4% 직장보험이 34.0%였다. 평생 사고중독 경험율은 농림어업인의 경우 18.2% 비농업인은 13.3%였으며, 지난 2주간 사고중독율은 농림어업인은 3.0%, 비농어업인은 2.0%로 나타났다. 사고중독후유증 호소율은 농업인은 8.1%, 비농업인은 3.7%였고, 사고 유형의 분포는 골절·탈구가 33.5%, 뼈거나 인대늘어남 22.1%, 좌상 18.2%순이었고 발생원인은 교통운수사고 44.7%, 추락미끄러짐 29.0%였고, 발생장소는 도로 44.4%, 논밭 33.9%였다. 연간 만성질환 수는 농림어업인의 경우 1.9개, 비농어업인은 1.2개 였고, 만성질환 유병자율(의사진

단)은 농어업인은 72.4%, 비농림어업인은 49.8%였고, 2주간 급성질환(의사진단)은 농어업인은 5.0%, 비농어업인은 5.2%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중 가장 많은 것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전체 질환에서는 61.5%로 나타났고, 유병자율은 근골격계질환이 46.5%, 순환기계질환 18.2%, 소화기계질환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농림어업인의 만성질환 유병자율은 근골격계질환이 19.5%, 순환기계질환 14.0%, 소화기계질환 11.4%순으로 농어업인의 근골격계질환 비율이 비농어업인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관절염 >요통>신경통>디스크>관절증>골다공증 순이었다.

4. 고찰

농어업인은 비농어업인에 비해 사고중독 경험율이 높고, 특히 만성질환 유병율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농어업에서도 근골격계 위험요인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며, 앞으로 농업인과 다른 산업의 육체노동자와의 비교 및 질환/사고와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상태와 작업유해요인 도출 및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